

서남권 · 동북권 르네상스로 도시균형발전이 실현됩니다.



권역별 르네상스 지역발전소식



2011년 8월호(통권 27호)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발전계획추진반

◇ 서남권 르네상스

- S라인 '샛강다리' 국제공공디자인 토목부문 우수상 수상 p 1
- 서울시, 관악구 청룡산에 주민텃밭공원 9월에 개장 p 2
- 시립보라매병원, 공공병원 현대화사업으로 의료서비스 업그레이드 p 3
- 여의도에 외국금융인 위한 국제의료센터 문연다 p 4

◇ 동북권 르네상스

- 서울시, 상계동~남양주 덕송간 도로개설사업 본격 추진 p 6
- 서울시, 성수IT종합센터 개관으로 제2의 IT밸리 육성한다 p 6
-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 p 8

◇ 알립니다

- 건축물 기부채납 제도화로 서울시 도시계획 탄력 p 9

S라인 '샛강다리' 국제공공디자인 토목부문 우수상 수상

- 한국 공공디자인지역재단이 주최한 '2011년 국제공공디자인대상'
- 400여 작품 출품, 총 24개 부문 70여 작품 수상
- 신길~여의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대칭 사장교 형태 디자인 인정
- 경쟁력 있는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 개선에 힘쓸 것

서울시는 신길~여의도를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대칭 사장교 형태의 보도교인 '샛강다리'가 2011년 국제공공디자인대상 토목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월 6일 밝혔다.

'샛강다리'는 구조물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

변 환경과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시골의 오솔길과 한강 물줄기를 연상시키는 S자 곡선의 다리 모양과 전통 한옥의 지붕 선을 고려한 케이블 배치 등으로 다리 모양은 신비감을 주었으며 다리 교각은 생태공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모양을 형상화했다.

지난 2011년 4월 준공과 함께 개통한 보도교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접근 및 영등포 신길동과 여의도동간을 이어준다.

특히 개통 후 시민과 함께 보도교 이름을 짓는 행사를 진행해 순수한 우리말 '샛강다리'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디자인 개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수한 건축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샛강다리 야간 전경>

(도시기본시설본부 ☎ 3708-8703)



서울시, 관악구 청룡산에 주민텃밭공원 9월에 개장

- 청룡산 자락 6,263㎡에 텃밭, 바비큐장, 허브 및 초화원 등 시설 갖춰
- 경사가 급한 지역은 숲을 복원해 유실 막고, 완만한 지역은 주민 공원 시설로
- 6,263㎡에 기초성 1만㎡, 보상중인 지역까지 포함 시 4만 6,159㎡의 거점공원 기대
- 9월 조성 후 지역주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꾸려 주민참여 관리 운영
- 주민참여형·맞춤형 공원의 첫 사례, 지역커뮤니티 살리는 모델 될 것

관악구청 뒤 청룡산 자락에 텃밭과 공원 기능을 동시에 갖춘 주민텃밭공원이 9월에 개장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추진중인 '관악산 청룡산 지구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악구 청룡동 산171-2번지 일대 6,263㎡에 7월부터 주민텃밭, 바비큐장, 허브 및 초화원 등 시설을 갖춘 주민텃밭공원 조성에 들어간다고 7월 12일 밝혔다.

6,263㎡에 기초성 1만㎡, 보상중인 지역까지 포함 시 4만 6,159㎡의 거점공원 기대

새롭게 자리할 주민텃밭공원은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500m(도보 7분 거리), 관악구청에서는 100m(도보 1분 거리) 밖에 떨어지지 않아 접근성이 뛰어나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 주변으로 6개의 학교들과 저층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어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일평균 1천여 명의 지역주민과 등산객이 이용할 정도로 유명한 청룡산에 주민텃밭공원이 개장하게 되면서 지역주민이나 텃밭 참여자를 제외하고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서울시는 주민텃밭공원 6,263㎡에 더해 기 조성이 완료된 청룡초등학교 인근 1만㎡,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 중인 약 3만㎡까지 공원조성이 모두 완료되는 2014년이 되면, 총 4만 6,159㎡의 지역거점공원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경사가 급한 지역은 숲을 복원해 유실 막고, 완만한 지역은 주민 공원 시설로

서울시는 그동안 청룡산 주민텃밭공원 지역이 계단식 불법경작과 이에 따른 산림 훼손으로 인해 경사진 지역은 일부 토사가 유실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경사가 급한 지역은 숲을 복원해 유실을 막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다양한 주민참여가 활발한 공원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조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사가 큰 지역 3,000㎡를 산림으로 복원, 2,000㎡는 '회복의 숲'으로 1,400㎡는 생태연못으로 구성한다.

전체적으로는 키큰나무 왕벚나무 등 10종 220그루와 키작은나무 좀작살 등 5종 6,060그루를 심게 되며, 골목길을 따라 총 4개소의 진입로를 연결하게 된다.

**9월 조성 후 지역주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려 주민참여 관리 운영**

서울시는 공원조성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주민들과 향후 주민터밭에 참여할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터밭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새롭게 조성되는 청룡산 주민터밭공원의 공원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청룡산 주민터밭공원은 서울시가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제안한 주민참여형, 주민 맞춤형 공원의 첫 사례이며, 설계단계에서 이미 주민들의 많은 이견들이 서로 녹아드는 과정을 거쳐 온 만큼 향후 지역 커뮤니티를 되살려내는 소중한 주민공동체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청룡산 주민터밭 조감도>

(공원조성과 ☎ 2115-7595)



**시립보라매병원
공공병원 현대화사업으로
의료서비스 업그레이드**

- 사랑관 리모델링 완공, 종합건강진단센터 이전 마무리 본격적 진료 개시

- 종합건강진단센터 전용 공간 확보, 검진 프로그램 세분화
- 치과, 인공신실, 물리치료실 확장 설치 및 신경정신과 입원실 별도 신설
- 장례식장 개별 분양실, 접객실 구획화 및 상주 휴게공간 마련

서울시는 지난 6월 15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의 사랑관 리모델링을 완공, 7월 8일 종합건강진단센터 이전을 마무리로 본격적인 진료를 개시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지난해 10월 희망관 리모델링 개원 후 사랑관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최근 공사를 마무리하고 진료를 개시했다.

서울시는 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인 이번 보라매병원의 리모델링 완공을 통해 시 산하 병원의 성공적인 모델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진료 환경병상 등이 오래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보라매병원 행복관을 신축하고, 2010년 10월 희망관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최근 사랑관을 완공하여 800여 병상을 구축하였다.

종합건강진단센터 전용 공간, 검진 프로그램 세분화

보라매병원은 시민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사랑관 3층에 종합건강진단센터 전용 공간을 만들고 대기실 및 내시경실을 확장했으며 관련 검진 종목을 분석, 폭넓은 사례조사와 실무회의를 거쳐 성별, 연령별 프로그램을 세분화하는 등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종합건강

진단센터는 성별, 연령별 검진은 물론 별도의 암정밀 검진이 특화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외에도 추가 검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검진센터에는 1:1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으며, 예약은 방문 및 전화(02-870-3333~4), 인터넷(www.brmh.org)으로 할 수 있다.

치과, 인공신실, 물리치료실 확장 설치

환자가 증가한 부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동 동선을 따라 진료실을 확장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했다.

재활의학과 이진과 함께 물리치료실도 기존 270㎡에서 452㎡로 확장하고 소아 환자 전용 물리치료실과 작업치료실에 이르기까지 치료 공간을 추가 신설했다.

신경정신과 입원실 별도 신설

사랑관 5층에 신설된 신경정신과 입원실은 총 20병상 규모의 개방형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최대한 밝고 환하게 처리하여 환자가 더욱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례식장 개별 분양실,

접객실 구획화 및 상주 휴게공간 마련

사랑관 지하1층에 고품격 장례식장을 개장했다. 분향실과 휴게실,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장례식장 통로를 넓혀 조화 및 조기 등을 전시하고 문상객 접객이 원만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개별분양실 및 접객실로 구획화, 상주 휴게공간 별도 확보 등 유가족의 상례에 부족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했다.

방사선종양학과 11월 신설예정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의료비 경감을 위해 올해 11월을 목표로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라매병원 이철희 병원장은 “사랑관 완공

으로 시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갖추었다”며 “보라매병원이 서울시 공공병원 현대화사업에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서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보라매병원 사랑관 리모델링 후 전경>

(보건정책과 ☎3707-9131)



여의도에 외국금융인 위한 국제의료센터 문연다

- '11년~12년 서울국제금융센터(SIFC)완공 일정에 맞춰 외국인 의료 서비스 확대
- 서울시-여의도 성모병원, 「외국금융인 의료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MOU」 체결
- 외국인 전용층·창구 마련, 원스톱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완료
- 외국인 전담 의료진과 영·일·중·러시아어 코디네이터 배치, 밀착서비스
- 국제금융지구 명성에 맞는 외국인정주환경 조성, 외국기업 유치 원동력으로 활용

여의도금융지구에 외국금융인들의 밀착 의료지원서비스를 위한 최첨단 국제의료센터가 <여의도 성모병원> 내에 문을 연다.

<여의도 성모병원> 내 국제의료센터에는 외국인 환

자를 위해 접수창구와 전담의사,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까지 따로 배치해 병원을 찾는 외국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원스톱으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여의도 성모병원,

「외국금융인 의료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MOU」 체결

서울시와 <여의도 성모병원>은 「외국 금융인 의료지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여의도 내 외국 금융인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국제의료센터 홍보 지원,

여의도성모병원-국제의료센터 및 의료인프라 구축

서울시는 이번 MOU체결을 통하여 <여의도 성모병원> 내 국제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하며,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사회공헌 활동의 확대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국제금융지구의 명성에 부합하는 국제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1년~12년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에 맞춰

국제의료센터 단계적 운영

또한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금융중심지 조성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외국인 진료를 확대하고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개장과 연계하여 2012년 8월에는 '국제의료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국제의료센터, 외국인 전담의료진과

영·일·중·러·시아어 코디네이터 배치, 밀착서비스

<여의도 성모병원> 본관 2층에 약 100m2 규모로 설치되는 국제의료센터는 외국인 치료를 위한 전담 의사와 간호사, 영·일·중·러·시아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접수→진료→치료가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다.

서울시, 거주외국인 의료서비스 강화위해

14개 전담진료소 운영, 의료정보 제공

한편 서울시는 현재 서울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 24시간 외국인 이용가능 병의원 및 양국 정보제공 △ 진료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24시간 다국어(영,일,중) 동시통역 서비스지원 등 국제 의료 서비스 질 강화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금융지구 명성에 맞는 외국인정주환경 조성,

외국기업 유치 원동력으로 활용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후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유치, 주거환경 개선, 의료시설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의도 성모병원과의 MOU가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명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의도금융중심지는 서울의 금융산업 발전과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는 2011년~2012년 단계적으로 완공될 계획이다.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전경>

(투지유치과 ☎2171-2776)



서울시 상계동~남양주 덕송간 도로개설 사업 본격 추진

- 상계동~남양주시 잇는 왕복4차선 광역도로 (2.4km) 개설
-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하루3만대 교통량 처리, 주변 교통정체 완화 기대
- 7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9월부터 본격 사업 착수, 2013년 완공 예정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리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이를 위한 보상을 9월부터 할 예정이라고 7월 7일 밝혔다.

상계동~덕송 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2.4km(1.8km 터널 포함) 구간의 총사업비 6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는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2013년 완공예정이다.

서울시는 상계동~남양주 덕송 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2010년 9월, 남양주시와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방법, 비용부담 및 준공 후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로 대부분(1.6km)이 남양주시인 점을 감안, 서울시가 관할구역(0.8km)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면 남양주시에서 전 구간(2.4km)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또 이미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가 사업비를 분담하며, 총사업비 650억원 중 50%는 국고지원을 받아 시행한다.

서울시는 상계동~남양주 덕송간 도로개설사업 계획이 지난 7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남양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덕능터널'(가칭)을 뚫는 사

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원구 상계동~남양주 덕송리 도로개설구간>

2013년 상계동~남양주 덕송 간 4차선 광역도로가 신설되면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도로망이 형성돼 경기, 강원지역을 오가는 통행시간을 한층 단축할 수 있게 된다.

하루 약 3만대의 교통량 처리로 화랑로 등 주변도로 교통정체가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그동안 상계동에서 남양주시를 갈 경우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한 덕능고개길(2차로)을 이용해야 해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이면 큰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개선할 수 있다.

(도로계획과 ☎3707-8135)

서울시 성수IT종합센터 개관으로 제2의 IT밸리 육성한다

- 7월 14일 총면적 9,909㎡ 지하1층~6층, 14층 규모 '성수IT종합센터' 문열어
- 12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중 성수 지구에 오픈하는 첫 IT종합지원시설
- 개별 사무실, 앱개발센터, 종합컨설팅실, 기업제품 전시관, 금융지원시설 등 갖춰
-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은 물론 마케팅, 판로개척, 자금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 개관식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 센터 내 입주 기업의 성공신화 기원
- 오 시장 “2011년엔 성수IT 서울형 특화지구가 제 2의 IT밸리 될 것”

90년대 테헤란이 IT밸리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서울형 특화산업지구인 성수 일대가 제2의 IT밸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IT특화산업지구로 지정된 성동구 성수동에 「성수IT종합센터」를 7월 14일 개관하고 이 일대에 집적된 146개 IT·BT·R&D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종합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2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중 성수 지구에 오픈하는 첫 IT종합지원시설

성수IT종합센터는 서울시가 서울 시내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09년부터 '10년 2차례에 걸쳐 지정한 12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중 성수 지구에 오픈하는 첫 종합지원시설이다.

개별 사무실, 앱개발센터, 종합컨설팅실, 기업제품 전시관, 금융지원시설 등 갖춰

성수IT종합센터는 총면적 9,909㎡ 지하1층~6층, 14층 규모로 ▲총31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개별 사무실 ▲공동이용 장비실 ▲창업보육실 ▲기업제품 전시관 ▲회의장 ▲비즈니스 상담센터 ▲PC교육장 ▲앱개발센터 ▲금융지원시설(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컨설팅실 등이 갖춰져 있다.

특히 개별업무공간 사무실은 1인 기업부터 성장기업까지 기업단계별 맞춤형 입주공간으로 꾸며지며, 컨설팅지원, 홍보마케팅 등 창업보육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5월 IT·BT·R&D 분야 창업

초기 기업 31곳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했다.

공개모집엔 71개 기업이 신청을 해 평균 2.3대 1의 입주 경쟁률을 보였다.

또, 센터 2층에는 최근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앱개발센터'를 설치, 앱 개발자나 1인 창조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발실(1~5인실, 13개)과 교육장, 회의실, 사무실을 마련했다.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은 물론 마케팅, 판로개척, 자금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서울시는 성수IT종합센터를 통해 IT·BT·R&D분야 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던 ▲연구개발 ▲자금지원 ▲인력양성 ▲마케팅&컨설팅 ▲판로개척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기업들은 주변시세의 1/3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를 하고, 자금조달법률특허마케팅수출상담, 자금지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 초빙 경영특별강좌 및 현장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야별 심도 있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 교육과 창업인재 개발이 이루어진다.

개관식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 센터 내 입주기업의 성공신화 기원

한편,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고재득 성동구청장, 지구내 중소기업 CEO, 입주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센터 내 입주기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특화산업지구를 2012년까지 자치구 별 1개소 이상, 총 30개를 지정하고 클러스터화해 산업경쟁력을 높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간지역 간 균형적 성장을 통해 서울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0년대 테헤란이 IT밸리의 중심이었다면 2011년엔 성수IT 서울형 특화지구가 제2의 IT밸리가 될 것”이라며 “성수IT종합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서울의 IT·BT·R&D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유망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미래 서울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수IT종합센터 전경>

(경제정책과 ☎ 2171-2851)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

-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서울시의회 가결
- 사업제안서 접수 위한 제3자 사업 참여 제안공고 실시
- 2013년말 착공, 2018년말 완공 목표

- 청량리에서 중랑구청까지 25~45분에서 10~30분 단축
- 추진절차 이행에 최선 다해 착공시기 앞당겨
- 2011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제231회 정례회, '11.6.23~7.8)에 제출한 동의안이 7월 8일 가결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습 정체구간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중랑구 신내동까지 연결하는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제안서 접수를 위한 제3자 사업 참여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서울 동북부 지역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면목선 경전철은 청량리역(1호선)~전농동~장안동~면목역(7호선)~망우동~신내역(6호선, 경춘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9.05km, 정거장 12개소로 건설될 예정이며 2013년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제3자 제안공고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첫 단계로 공고를 거쳐 사업 참여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금년 1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13년말 착공하여 2018년말 완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목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청량리에서 중랑구청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어 기존 대중교통편을 이용할 때 보다 약 20분이 단축된다”며 “지하철 1·6·7호선 및 경춘선과의 환승도 가능해 서울 동북부 지역 일대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면목선 경전철 노선도>

(도시기반시설본부 ☎ 772-7157)



알립니다

건축물 기부채납 제도화로 서울시 도시계획 탄력

- 도로·공원 등 토지 외에 복지시설 등 건축물까지 기부채납 가능토록 조례 개정
- 강동 서울융합차고지 등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 사업 가시화
-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재정비촉진, 도시개발사업에도 적용
→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
- 시 공공재원 부담 없이 필요 기반시설 확보, 사업자는 사업할 수 있는 추가 연면적 확보
-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기여 이루어 질 것

앞으로 도로·공원 등 토지로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 돼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로·공원 등 토지 외에 복지시설 등 건축물까지 기부채납 가능토록 조례 개정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시 용도변경을 해 주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7월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시설을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서울시의 입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건축물 시설을 기부 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난 3월 9일 마련하고, 서울시 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7월 8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강동 서울융합차고지 등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 사업 가시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건축물 시설의 공공기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어왔던 서울시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의 사업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신도시계획은 토지활용 잠재력은 높으나 각종 특혜시비로 개발이 지연되어온 1만㎡ 이상의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와 공공이 개발내용과 공공기여를 협상해 토지활용도를 높이면서 공공기여를 통해 토지주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제도이다.

현재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대상지 중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대상지는 강동 서울융합차고지, 용산 관

광버스터미널부지, 독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 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5개소로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올해 안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에서 강동 서울융합부지는 협상이 완료되어 공공 기여 총량을 확정하고,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용산 관광버스터미널은 우리시의 부족한 인프라인 관광숙박시설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중에 있어 곧 전문가, 민간, 공공이 참여하는 협상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수동 독섬 삼표레미콘 부지는 글로벌비즈니스 타운 건설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초고층 건립에 따른 경관분석을 마친상태로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협약이 진행 중이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재정비촉진, 도시개발사업에도 적용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지가액이 200만원/㎡인 대지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연면적 1,000㎡의 공공청사를 공사비 16억을 들여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사비 16억에 해당하는 부지 800㎡(16억원÷200만원)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 공공재원 부담 없이 필요 기반시설 확보, 사업자는 추가 연면적 확보

서울시는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추가 공공재원 부담 없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건축물로 기부채납시 그 가액이 약 5조 1천억원 규모에 달해, 공공과 주민이 필요로하는 상당량의 시설이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설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사업자는 토지 이외에도 건축물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면적이 확보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제 도로·공원 등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기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 및 후속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도 조례개정 등 건축물 기부채납 제도 도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발전계획추진반 ☎6361-3595)

권역별 르네상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자유롭게 의견주세요 @seoulwithyou (트위터)
- ✓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http://urban.seoul.go.kr>
- ✓ 동북권 르네상스 블로그 <http://blog.naver.com/dongbukseoul>
- ✓ 서남권 르네상스 블로그 <http://blog.naver.com/seonamseoul>